

## 학생회장단 소감

# 제 23대 치위생학과 학생회장단 나란 당선

### <학생회장 소감>

안녕하세요. 이번 23대 치위생학과 학생회장으로 당선된 송윤서입니다. 먼저, 저희를 믿고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 주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다짐하면서도, 당선 전날 밤에는 긴장으로 밤잠을 설치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당선 당일에는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아 어안이 병병했는데, 이제야 조금씩 실감 나는 것 같네요. 후보자 등록을 하기 전, 할 수 있다고 저희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신 선배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또한, 후보자 기간에 내색은 안 했지만 멀리서 응원해주신 모든 분들이 떠오릅니다. 저희가 학생회장단을 결심한 이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헤쳐 나가 보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 학생회장 송윤서 -

### <부학생회장 소개>

안녕하세요. 제23대 치위생학과 부학생회장으로 당선된 배서희입니다. 먼저, 저희를 믿고 지지해주신 치위생학과 학우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걱정도, 고민도 많았던 저희 회장단에게 끊임없이 용기를 주신 많은 치위생학과 학우 여러분이 있기에 최선을 다해 임할 수 있었습니다. 선거 준비 기간뿐만 아니라 당선 이후에도 많은 분께서 응원해주시고 축하해주신 덕분에 저희가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많은 격려를 받은 만큼 감사함을 잊지 않고 학우분들을 위해 베푸는 회장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부학생회장 배서희 -



## <공약에 대한 회장단의 포부>

저희 학생회 '나란'은 여러 가지 공약으로 한해를 계획했습니다.

먼저, 저희 '나란'은 가장 눈에 띄지 않던 사업인 '물품대여사업'을 더욱 활성화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필요로 하는 물품을 파악하고, 물품 대여를 편리하고 익숙해질 수 있도록 하여 수업에서 불편을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서 물품을 분실 혹은 훼손할 경우 벌금을 부여하는 등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회장단과 학생회가 꾸준히 관심을 기울이며 사업을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구강보건 날 6.9제 행사는 '예소사'와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진행 방향은 아직 많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고려하는 중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치위생학과 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모두가 소외되지 않고 즐길 수 있는 요소가 많은 이벤트를 계획하고자 하여, 2학기에는 '크리스마스 이벤트 사업'을 계획하였습니다. '나란'은 치위생학의 특성 상 오래 머무르는 벤처센터에서 크리스마스 분위기를 물씬 느끼고, 추운 겨울에 각자의 소망을 적어 내려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란'의 모든 사업을 수월하게 시작하고, 학우분들의 다양한 피드백과 의견을 원활히 소통하며 나란히 나아가고 싶습니다. 만족도 조사는 쉽고 간단하게 의견을 수용할 수 있어 많은 학생이 '나란'의 활동에 만족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더욱 고심했던 공약입니다. 저희에게 어떤 의견이든 편하게 건네주세요. 몸에 좋은 약은 쓴 법이니 달게 받겠습니다. 물론 고래도 춤추게 하는 칭찬도 환영합니다. 주기적으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할 때 말씀하셔도 좋고, 따로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가 수행할 모든 것보다 학우 여러분의 의견이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를 질책하는 의견, 사업에 개선을 요하는 피드백은 모두 학우 여러분을 위한 것이니 솔직한 의견을 편하게 들려주세요.

저희가 회장단으로 활동할 1년 동안 '나란'이란 단어가 빛바래지 않길 바랍니다. 거창한 변화보다는 기존의 좋은 것들을 다듬고 보완하는 데 집중하는 학생회가 되고자 합니다. '평범'과 '보통'이란 말이 제일 어려운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 치위생학과 학우 모두가 편안한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뒤에서 열심히 돕겠습니다.

